

# 新都市에 문화단지를

權炳壹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일산·분당 신도시 개발계획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면서, 인구밀집도시인 서울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로서는 물론 일산·분당, 이 두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은 신도시를 세움으로써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특히 작금에 유행병처럼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투기심을 막는다는 여러가지 방침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왕 신도시가 들어설 바에는 개성있고 생산적인 도시, 즉 서울 인구의 분산이나 주택문제 같은 것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사업까지도 수용 또는 지원하는 특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신도시(일산이든 분당이든 어느곳이나 좋다)에 '문화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때마침 지난 6월7일 뜻있는 출판인들이 모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음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도시에 출판사를 비롯하여 조판, 인쇄, 제본 등 일련의 작업시설과 지엽사, 정보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작가 집필실 등을 두루 갖춘 대규모 문화단지가 들어선다면, 당국으로서도 당초에 이 도시를 세우려던 계획 외에 문화정책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신도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징없는 도시란 그만큼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장차는 낙후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계획은 민간(출판인)의 힘으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후 출판인들이 그 시설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판이란 원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내지 육성되어야 할 백년대계의 사업임에 비추어, 한 나라에 마땅한 단지 하나 없다는 것은(마포에 조그만 출판단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 없어졌다)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차체에 대규모 문화단지를 신도시 구획에 참여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는 출판인구의 지역취로에도 이바지할 뿐더러, 도시 혼잡으로 교통과 공해가 심한 곳을 피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특히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없이 보람있고 생산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련의 출판작업은 따지고보면 육체노동이거니와 두뇌를 필요로 하는 정신노동에 다름아닌 까닭에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신도시 개발에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도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90년대의 우리 사회는 도시인의 귀농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농촌의 도시화가 촉진될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이 아닌 외곽의 신도시에 문화단지를 세운다면 이 또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책 한권의 생명은 한 세기의 생명과도 필적한다고 말한다. 어떤 책은 여러 세기를 두고 사람들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가치있는 게 책인 것이다. 때문에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둠과 그늘 속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책을 가까이하고, 책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유하고 강해진다. 그들은 그만큼 깨우쳐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깨우친 국민일수록 책을 가까이하고, 깨우친 나라일수록 책에 관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도 책을 더욱 가까이하는 깨우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 즈음하여 문화단지 조성을 제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지인물 2 「韓國口傳說話」 '북한판' 완결한 任晝幸翁

특별기획 4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①

—전 博文書館 사장 李應奎씨에게 듣는다

23 서울의 문화지도, 색깔 달라진다

24 지식산업의 현장 '출판벨트'를 가다

—서울시내 出版文化地圖 ① 鍾路지역

화제작의 주변 7 美대학교육의 철저한 자기만성/崔鍾庫

화제의 책 3 한 중국지식인의 통렬한 체제비판

출판時評 8 변혁의 시대와 철학의 사명/김광수

서평 10 張正龍 「江陵官奴假面劇研究」—徐淵昊

崔大羽의 「丁茶山の 經學」—崔根德

11 김일철 「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梁鍾會

이호재 「한국의 여성운동」—姜男植

12 李光來 「해체주의란 무엇인가」—金聖坤

손영수 역 「노벨상의 빛과 그늘」—李成奎

13 張伯逸 「金東仁文學研究」—申東旭

韓勝源 「아버지와 아들」—李在銑

그때그 시절 14 젊음을 불살랐던 「新太陽」시절/洪性裕

15 잡지 황무지 개척한 故 黃俊性사장

출판화제 16 우리말로 재창조한 옛 漢詩의 집대성

17 출판사마다 '심볼마크 만들기' 유행

출판과 문화 18 프랑스 서점가 휩쓰는 '혁명바람'/朱燮日

세미나중계 20 "정보화사회 주도하는 새 문화운동을"—金璟東

21 "청소년도서에서 사회정책적 지원을"—劉載天

22 "외설잡지 범람,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지금 독서중 26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서점주인 沈範燮씨

金潤姬의 「잃어버린 너」—피아노학원 원장 洪경월씨

27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광고인 金台坤씨

李有我的 「나의 자녀 무엇을 먼저…」—주부 邊明熙씨

독자서평 28 마광수 시집 「귀굴」—朴慈暻

李箕永 「宗教史話」—김승호

이영희 「歷程」—홍영표

29 장석주 시집 「어느 길에 관한 기억」—심상우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민경태

「기다려도 神은 오지 않는다」—문은경

세계의 출판 30 헝가리 출판계에 거센 자유화바람·外

32 새로 나온 詩集

33 어린이책 들춰보기

34 신간안내

42 200자 안내/화제의 책

44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데스크칼럼 48 志士와 商人 사이/강철주

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